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재현된 자기통치 공간으로서의 서울

재현 공간으로서의 대도시와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청년들

노영은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류웅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경성 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서울의 이미지와 현실에 주목하는 방송 콘텐츠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삶과 일상, 특히 '주거'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울산 MBC에서 방영되었던 〈경성 판타지〉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서울 판타지와 여행을 그려낸다. 이 콘텐츠는 글로벌 대도시 '서울'을 꿈과 희망이 존재하는 '판타지'적인 도시로 재현함과 동시에 그 이면을 함께 보여준다. 도시 현실에 대한 복합적 재현은 EBS의 다큐프라임 〈그곳에 청년이 산다〉에서도 나타난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청년들을 등장시켜 서울에서 자취하는 개인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 조명한다. 이 두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시, 서울을 특정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점이 있다.

특히, 도시와 청년들의 꿈을 일련의 연계된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현실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공간이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은폐하는 담론으로 이용되는 지점과 그 점이 수용자에게 통치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상적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경성 판타지〉, 서울이라는 공간과 청년들의 삶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곳에 청년이 산다〉를 통해 미디어가 구성하는 서울의 이미지, 그것이 직조하는 사회적 상상과 그 이면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duddms9714@naver.com

\*\* wjryoo@hanyang.ac.kr, 교신저자

이 연구는 두 프로그램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함께 2030세대 시청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조밀한 현실 사회 속 도시의 기능과 주체의 실천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앙리 르페브르와 데이빗 하비의 재현 공간과 관계적 공간이라는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이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일상성의 모순을 망각하게 하는 도시의 특성 및 신자유주의와 공간에 대한 이들의 성찰적 논의가 신자유주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기능과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의는 서울을 판타지적인 공간으로 재현하는 것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잊게 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관찰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도시, 공간, 청년, 신자유주의, 자기통치

## 1.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다양한 서사를 품고 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나 텔레비전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통해, 혹은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를 통해, 그 외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가령, 홍대 젊음의 거리가 ‘청년’을 상징하는 것과 광화문이 ‘역사’, ‘촛불’ 등의 단어로 연결되는 것, 보다 거시적으로는 서울이 ‘꿈’이나 ‘희망’의 공간으로 인지되고 광주는 ‘평화나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동연(2004, 181쪽)은 ‘홍대’라는 공간에 대해 “3년 전만 해도 담벼슬 머리와 메탈 재킷에 체인을 온몸에 두르고 다니던 토착적인 펑크족들을 홍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청년문화의 형식들과 조우하면서 인디 문화를 표방하는 홍대 지역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상징 기호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한 공간의 다양한 이야기와 생활양식이 그 공간을 표상하는 특정 이미지로 고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그곳의 정체성을 독점적으로 전유하는 기호가 되고, 이는 다시 특정 공간에 대한 일반화한 관념, 혹은 심상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담론을 매개로 해 우리는 그 공간을 다시 상상한다.

이 글에서 보고자 하는 울산 MBC의 예능 프로그램 <경성 판타지><sup>1)</sup>와 <EBS 다큐 프라임: 행복한 주거 1부 그곳에 청년이 산다><sup>2)</sup>는 서울

---

1) <경성 판타지>는 울산 MBC에서 방영된 여행 관찰 예능이다. 이는 서울에 대한 판타지를 갖는 지역민들이 여행을 통해 환상과 마주하는 내용이다. 때문인지 서울에 환상을 갖는 청년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점은 공간의 특성이 청년에게 스며드는 일련의 과정을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로서의 콘텐츠라는 판단 하에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출처: 울산 MBC 홈페이지. URL: <https://www.usmbc.co.kr/pr ogr amme/V7sZKqPuW1UAp3r>)

2) <EBS 다큐 프라임: 행복한 주거 1부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이는 경제와 주거 빈곤에 대한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1부는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 조명한다. 이는 주거 문제를 다

이라는 공간에 대한 서술을 통해 특정 이미지를 주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성 판타지>는 지방 정주민이 갖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나 상상을 서술하며 서울 여행을 통해 그들의 판타지를 충족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수도에 대한 특정 이미지의, 특정 방식의 재현을 통해 지방 정주민이 상상하는 서울에 관해 보여주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들의 자발적인 시선과 욕망의 형식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서울에 자신의 꿈을 성취하러 모여든 청년들이 마주하는 도시 공간의 현실에 대해 서술한다.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 상경했지만, 정작 ‘그곳’은 안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듯한 방 한 칸조차 얻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청년들은 꿈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나 도전도 하기 전에, ‘그곳’에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 치열한 노동과 내핍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경성 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해 꿈과 현실이라는 대조적이면서도 유사한 서사를 전개한다. 이는 수도가 꿈을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희망적이거나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경성 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에 나타나는 공간적 이미지의 재현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프로그램에 재현되는 공간적 특성과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곳’에 당도한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이라는 글로벌화한 도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모종의 사회적 상상과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인지, 이와

---

롭으로써 공간과 청년이 연결된 측면을 다루고, 공간의 조건에 따라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재현하고 있기에 이를 사례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이후 <그곳에 청년이 산다>로 약칭한다. (출처: EBS 홈페이지. URL: <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courseId=BP0PAPB0000000005&stepId=01BP0PAPB0000000005&lectId=10694688>)

관련해 청년들의 인식과 실제, 그리고 재현이라는 관계들이 어떻게 충돌, 접합, 혹은 순환하며 특정 이미지와 장소성을 획득하고 견고화하는지 보고자 한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통치의 과정이 공간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대중, 특히 청년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 거주하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서울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도시 공간과 주체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불어,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녹여냄으로써 공간이 재현되고 상상되는 과정, 그리고 미디어 문화가 매개하는 공간의 정치학에 관해 탐색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전파의 매개체로 작동하기도 한다. 김대근(2019, 151쪽)은 텍스트의 의미 발생이 텍스트의 주체나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속성의 재현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성 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우리 사회의 담론이 재현되고 있는 방송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안(Tuan, 1977/1995, 20쪽)이 제시하듯 인간이 공간이나 장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연구나 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험 양식, 혹은 공간과 장소를 복잡한 감정과 이미지의 결정으로 보고 이를 해석하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미디어가 투영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상된 이미지와 경험들을 반영해 공간에 얽힌 감정과 특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하게 상상되고 재현되는 이미지가 청년들에게 일종의 통치 기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2030세대가 경험하는 도시 사회의 암묵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 영향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탐문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도시 공간과 상상된 이미지

르페브르에 따르면 모든 공간은 인간에 의하여 생산, 재생산된다. 나아가 공간은 내용물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지만 이를 감추고 있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교육, 행정, 정치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보편적인 사회적 실천을 형성하며 사회적 공간이 된다. 생산된 공간은 사고와 행위에서 일련의 도구로서의 구실을 하는 동시에, 생산의 수단이자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곧 지배와 권력의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르페브르는 공간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는 ‘공간적 실천<sup>3)</sup>’, ‘공간 재현<sup>4)</sup>’, 그리고 ‘재현 공간’이다(오민석, 2018; 홍준기, 2011, 170쪽; Lefévre, 1988/2011, 88쪽).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논의는 세 번째, ‘재현 공간’에 관한 것이다.

비슷한 어감의 공간 재현이 공간을 과학적으로 구상하고 재현하는 공간이라면, 재현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체험된 공간이자, 정서적인 핵을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현 공간은 개인에 의해 다양하

---

3) 공간적 실천은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응집력을 유지키는 사회적 훈련이 필요한 고유 공간의 총체를 아우른다. 특히, 이 개념은 사회적 공간과 사회 구성원이 맺는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Lefévre, 1988, 80쪽). 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고 구체적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 인간이 공간 내에서 사회화되는 과정과 사회적 공간의 구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이 글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4) 공간 재현은 인지된 공간, 이를테면 학자들, 계획 수립자들, 도시 계획가들과 같이 공간을 구획짓고 배열하는 과학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공간이다(Lefévre, 1988/2011, 80쪽). 도시 계획에 근거하여 생겨난 공간 구획과 건축물, 상징적 건물과 같은 전시적인 공간 구획을 의미한다(홍준기, 2011, 171쪽). 이 논문에서는 계획된 도시의 배열된 공간의 특성보다, 상상되고 인지되는, 그리고 체험되는 측면과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고자 하였기에 이 개념은 제외하였다.

게 체험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일관적일 수 없다(임성훈, 2014, 190쪽; 홍준기, 2011, 174쪽; Lefévre, 1988/2011, 88쪽). 이러한 재현 공간의 특성은 상상적으로 도시를 꿈꾸고, 그곳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체험되는 경향이 강하고 일관된 용어로 한정될 수 없다는 부분은 서울로 모인 청년들이 환상과 희망을 품고 왔지만, 그 이면에 도시는 “악마리가 되어야 버티는 곳”<sup>5)</sup>, 혹은, “생존해야 하는 곳”<sup>6)</sup>으로 여기기도 하는 이중적, 혹은 모순적 성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재현 공간의 특성과 관련해 이것이 일관되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이 공간이 상상과 상징이 개입되는 공간으로, 질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재현 공간의 특성은 사용자들로부터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 삽입된 것이나 정당화되는 것을 따르게 하는데 여기서 강요되고 삽입되며 정당화되는 것은 재현 속에 삽입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Lefévre, 1988/2011, 88-89쪽). 정당화의 과정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에 존재하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를 의심 없이 마주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도시는 욕망을 투사 받은 담론의 재현 공간이자,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화의 과정에서 거주민들은 사회적 관계를 겪으며 모순과 문제점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는 허구적 해결 방법, 이를테면 대상에 욕망을 투사하여 현실과 상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를 부여하고 상상의 운반수단인 담론을 통해 그것을 믿게 함으로써 해결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간에 투영되어 도시성을 형성하고 그 빈틈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Lefévre, 1967/1990, 176쪽). 가령,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경험하는 공간의 모순과 이중성, 상상과 현실, 그리고 합리화의 과정, 한 예로 서울 살이가 팍팍해도 계속 서울에 남고 싶다는

---

5) 인터뷰 참여자 G의 응답 인용

6) 인터뷰 참여자 B의 응답 인용

욕망, 일단 도시에 남게 되었으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등은 이의 일례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갈등과 모순의 공간이 된다. 특히, 그 갈등과 모순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 측면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르페브르는 과리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이득을 보기 위한 부르주아의 계획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들은 도시를 이용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거처를 빼앗아 그들의 주거지로 만들었고, 기존 공간을 분할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언급한다. 이 과정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도시계획 작업을 통해 노동자를 도시 외곽으로 내몰아 주변화하는 것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계급투쟁과 정치 투쟁의 장소이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지점은 노동자들이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는데, 부르주아들이 차지하게 된 도시의 중심은 산물과 사람들을 환영하고, 본질적이고 경제적 기능을 위협하는 이들의 접근을 금지하며 자본주의를 예측시킨다. 결국 도시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Elden, 2004/2018, 254쪽).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이념이 삼입되고 작동하는 도시는 질적으로 상상과 가능성의 도시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 모순과 투쟁, 배제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르페브르가 언급하듯 현대 사회까지 이어지는 모순이기도 하며, 따라서 현대 도시의 일상적 모순을 밝히기에 유용한 지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양면성은 하비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하비는 르페브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고, 이는 하비의 일부 논의가 르페브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하비는 르페브르의 이론-공간의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을 토대로 여기에 시간의 개념을 삼입해 더욱 확장된 논의를 전개한다. 그것은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sup>7)</sup>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할 것은 관계적 공간이다. 하비는 관계적 공간을 시각, 환상, 욕망, 좌절, 기억, 꿈, 환영, 심리상태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공간이라 설명한다(Harvey, 2005b/2008, 217쪽). 이는 도시의 모습과 유토피아의 모습이 오랜 기간 서로 뒤섞이며 생성, 변화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계몽주의의 수많은 유토피아적 계획들은 공간의 정치를 통해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비는 “사회적 관계와 무관한 공간의 정치란 있을 수 없다”고 일갈한다(Harvey, 1990/1994, 313쪽; 2000/2001, 215쪽). 유토피아가 땅에 착륙하려 할 때 그것이 기반을 둘 공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유토피아의 가시적 실현에 있어 결정적 국면이 되는데, 이 실체화의 과정은 일련의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결과로 도출된 공간은 자유 시장에 기초해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심화를 동반했고, 동질성과 평등을 위한 것과는 멀어졌다. 따라서 사회적 과정에서 실체화된 유토피아는 의도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을 만들어내며 이상적 성격을 상실했다(Harvey, 2000/2001, 246쪽).

한편, “도시의 공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측면이 있다. 도시 생활과 개인의 자유는 오랫동안 일종의 짝패처럼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이민 세대들은 도시를 농촌의 억압으로부터 피난처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비는 어떠한 유토피아적 상상들, 가령, 도시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억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등의 그것도 정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체현되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사유와 상상 또한 이미 창출된 제도적 세계와 환경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이에 하비는 도시의

---

7) 절대적 공간이란 고정되고 표준화된 격자로 지정된 공간이며, 상대적 공간은 대상들 사이의 관계로서 이해되는 공간이다. 관계적 공간은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나타내고 있는 한에서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Harvey, 2005b/2008).

미래를 숙고하면서, 과업의 속성에 관한 의미를 고민하고, 광범위한 감정적, 상징적 의미와 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Harvey, 2000/2001, 219쪽). 그의 제안은 도시가 시간에 따라 축적해온 상징과 그 이면에서 체험되는 것들, 그것의 모순, 갈등에 대해 밝힐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의 이면과 조응하면서도, 모종의 유토피아적 프로젝트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일면으로 보고 비판한다는 지점에서, 한국의 도시, 특히 공간의 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더욱 확장되고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sup>8)</sup>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의 지배적 이념 체계가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때로는 확장, 축소, 변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중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는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이를 가장 빨리, 그리고 다면적으로 체화한 공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고 국가발전을 꾀할 때, 서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를 추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매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서울은 하비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분석적 설득력과 가능성을 확보한다. 특히, 서울이 유토피아로 묘사되는 측면, 일례로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 등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에서 더욱 그러하다.

---

8) 신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는 최소 국가로의 회귀, 국제적으로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을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세계화의 힘으로의 변경으로 특징지어지는 고전적인 자유방임 자유주의로의 회귀 혹은 부활로 여겨진다(Cahill & Konings, 2017/2019). 한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경제’라는 언술과 정책적 수사를 통해 신자유주의로의 움직임이 보여왔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되는 결정적 기점이 된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해 구축된 신자유주의는 일면 강요된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단기적 위기상황이 수습된 이후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한 후에도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나아가 심화는 계속되고 있다(윤상우, 2009, 50쪽).

이는 르페브르가 언급한 삽입된 이념을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또 일상성의 모순을 망각하게 하기 위한 도시성의 형성이라는 논점과도 연결된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생산하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국가적 구조와 주체 사이의 은폐된 모순을 파헤치고, 이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즉 도시에 대한 주체들의 권리를 주장한다(정두순, 2018, 240쪽). 이는 한국 사회에서 도시, 즉 서울이 가지는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균열을 밝히고, 그곳을 살아내는 개인들이 주체로서의 권리를 잃고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르페브르와 하비의 논의를 참고해 지상과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서울의 재현 및 그 과정에 삽입된 이념과 정서를 검토하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메시지와 담론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반영된 공간적 특성이 청년 세대에게 수용되는 방식과 이러한 이념이 통치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신자유주의와 청년들의 자기 통치

앞서 우리는 이념과 질적인 특성이 공간에 스며들게 된 과정, 이를테면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배경이 공간에 흡수되게 된 경로와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했다. 여기에서는 공간적 특성이 된 사회구조, 특히 신자유주의와 자기 통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하비(Harvey, 2005a/2007, 21쪽)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주의에 대해 엘리트의 권력 회복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요소들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체계라고 보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움직임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수혜하기 위해 경제정책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빠른 속도로 ‘수동 혁명’이 진행되었다(임운택, 2010, 310쪽).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화한 정책 기조는 범위를 확대하며 내부화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미 FTA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업도시,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신자유주의를 안정적인 체제로 구축시키며 일상생활에 신자유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했다. 시장 논리는 사회화 과정에도 침투하며 시장의 성과로 평가되는 문화의 상품화/시장화 경향이 확대되었고, 사회적 관계의 시장화가 이루어졌으며 계급상승을 꿈꾸는 중산층에 환상을 심어주게 되었다(윤민재, 2017, 94쪽; 임운택, 2010, 320쪽).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세 정책이나 민영화 정책,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며 신자유주의화를 심화시켰다(윤상우, 2009, 52쪽).

한국 사회에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낡은 역사로부터의 탈피와 근대주의적 발전주의 열망에 의해 정치적 논리로 이용되었는데, 이는 이내 정치 현상을 넘어, 사회, 문화적 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임운택, 2010, 322쪽; 조영한, 2012, 24쪽).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는 국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지 못했다는 배경이 존재했다. 특히, 근대 한국 사회에 ‘힐링 문화’가 유행하는 것을 주목해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극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기저에는 경제난과 소통의 부재, 구조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 사회의 불균형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이되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다(김은준, 2015, 40쪽). 이에 하비(Harvey, 2005a/2007, 66-67쪽)는 대중매체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하며, 하위 계급들이 처한 조건 악화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문화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디어가 한 사회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개인이 자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규정함으로써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없다(박상완, 2018, 168쪽).

결국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이념은 정치·경제를 넘어서 대중들이 향유하는 문화에도 빠르게 침윤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재현함으로써 이를 따르게 하는 한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에 한선(2013, 438쪽)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이 개인으로부터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 판단, 결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스스로 짊어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은 한편으로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시대의 참여문화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때문에, 이러한 ‘능동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푸코의 자율 주체 개념을 비롯해, 후대의 여러 학자들이 강조한 ‘자기관리’, ‘자기 조정’, ‘자기 통치’와 같은 ‘자율 주체’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도 접합된다(한선, 2013, 438쪽).

홍성현과 류용재(2013, 48쪽)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맥락에서 글로벌 인재 담론이 교육 부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대학교육의 시장화 담론에 작동되고 있으며 이는 자기 계발과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기 계발에 대한 내면 지향성과 자기 주도성에 주목한 전상진(2008, 122쪽) 역시 자기 계발 수행자들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김에 따라 공적 영역을 소멸시키고 결과적으로 개인화된 자기 통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사유는 자기 계발의 통치술로 이어지며 사회에 복잡다기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이는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30’, ‘청년’과 같은 키

워드와 빈번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일례로, 송아현과 백선기(2018, 158쪽)는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양식 또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자기통치의 키워드가 청년들, 혹은 20대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김은준, 2015, 48쪽; 덩종리·류용재, 2020, 8쪽; 정명중, 2017, 24쪽; 표예인, 2017, 141쪽).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단어의 쓰임은 여러 담론과 맥락 안에서 그 의미가 변주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청년’이란 단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뜻이 변모하며 쓰여 왔으며 그들을 칭하는 수식어 또한 변화하였다. 또한, 청년은 최근 이른바 ‘세대론’과 함께 사용되며 그 어의가 확장되고 있다. ‘세대’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코호트(cohort)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구조와 행위 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세대론은 ‘세대’를 직접 언급하며 이야기할 때만 성립되는 개념은 아니며, 세대적 관점을 상기시키는 많은 담론을 세대주의적 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선기, 2014, 211쪽; 박재홍, 2001, 54쪽; 전상진, 2019, 3쪽).

한국에서 ‘청년’은 주로 세대론을 통해 호명되어 왔는데 최성민(2012, 236쪽)은 그 시작을 1970년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담론 전반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분석의 초점이 된 2030세대가 태어나거나 유년시절을 보낸 2000년대 초반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 문화적으로 특히, 미디어를 통해 청년은 문화적 세대를 의미하는 ‘밀레니얼 세대’, 대중문화에 익숙한 ‘실크세대’, 글로벌하다는 의미의 ‘G(lobal)세대’, 혹

은 X세대 이후의 청년세대라는 의미에서 Y세대나 Z세대로 명명되었다. 이후, 이들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은 ‘88만원 세대’나 ‘N포 세대’ 등이 있는데, 이는 청년들이 소비의 주체로서도 주목받지 못한 채 소외되는 존재가 되며 인건비에 시달리는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으로 명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전영수(2013, 20쪽)는 1980년대 출생의 30대들을 ‘이케아 세대’로 칭하며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지만, 개인의 삶에 소소한 현실 만족을 얻는 세대라고 표현한다. 때문에, 이들은 ‘연대’나 ‘우리’로서의 공동체적 열망을 바라던 기성세대와 달리 ‘개인’이 중시되는 세대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미디어는 청년들에 대해 “불쌍하거나, 꽤 씹하거나”의 이항대립적 키워드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재연, 2018; 윤형중, 2019; 이승희, 2019; 최성민, 2012, 243쪽).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면 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방희경과 유수미(2015, 57쪽)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청년세대에 직접적인 명칭을 내놓을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의들은 대상 자체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시선과 권력 작용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논의에는 몇 가지 비판점이 제기된다.

먼저 세대론적 관점은 개개인이 위치한 배경과 여러 요소, 나아가 개개인이 겪는 여러 경험을 모두 배제하고 하나의 객체로 호명함과 동시에 그들을 단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에 대한 비판과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불평을 하면 “꽤 씹한 청년세대”, 하소연을 하면 “불쌍한 청년세대”로 표현될 뿐, 일련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전망으로 귀결되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이 속한 계급과 계층에 대한 편차가 있음에도 이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청년세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통합하여 호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이는 물론 사회과학적이며 효율적 분석을 위한 개념적 유용성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문화적, 경험적으로 다양다기한 개인들을 단 순화하여 편의적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대론에 대한 비판은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세대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세대 문제로 환원시키며 이러한 지점이 세대 갈등과 사회변동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김선기, 2014, 211쪽; 박재홍, 2001, 54쪽; 전상진, 2019, 3쪽). 이승희(2019) 또한, 쉽게 ‘세대화’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모든 것을 ‘청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진짜 청년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뭉뚱그리려는 시도, 이를테면 무기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정태적인 그 ‘무엇’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제기되어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20대와 30대가 된 개인들을 청년이라는 광범위한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과 그들에게 신자유주의와 자기 통치가 전달되는 방식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반면, 미디어에 재현되는 공간과 관련해 그 특성과 담론이 청년 주체들에게 어떻게 전달, 소구,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에 재현되는 공간적 특성과 이를 통해 청년들을 호명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경성 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라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자유주의적 전위, 혹은 이를 충실하게 체현하는 공간으로서 ‘서울’이 재현되거나 상상되는 방식, 이곳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삶의 경험, 그리고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및 이의 접합과 전유, 충돌 등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관련해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관념들, 예컨대 과열된 경쟁에의 자발적, 혹은 선택적 참여, 개인이 체험하는 부담과 불안, 이로



인해 갖게 되는 압박과 스스로 행하는 자기 검열과 통치 등이 합리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안에서 계층과 계급, 그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차이에 따라 개인들이 공유하는 경험과 정동, 혹은 그 차이와 균열 등에 대해서도 조명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울산 MBC에서 기획된 프로그램 <경성 판타지>와, EBS에서 기획된 다큐 프라임 <그곳에 청년이 산다>를 선정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성 판타지>는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서울 판타지'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행기를 담는 프로그램으로, 관찰형 예능 장르를 취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 MBC에서 제작된 방송이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판타지적 담론에 대해 다루며 서울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과 다층위적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었고, '꿈'과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를 위해 <경성 판타지>의 여러 회차 중에서도 1회차와 2회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회차의 경우 프로그램이 처음 방영되는 회차로 해당 콘텐츠가 가지는 취지와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2회차의 경우 1회차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청년들이 서울 여행을 기획한 이유가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드러나는 회차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여행기는 4회차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한 회차가 약 50분 동안 방영된다는 점, 이야기의 서술 과정이 동어반복적인 형태를 지닌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네 개의 회차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소개와

정보가 함축적으로 구성된 1회차와 2회차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경성 판타지〉는 울산 MBC에서 편성된 예능이며 첫 방영 이후 호평을 받아 서울 MBC로 역수입되어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제작진은 한국PD연합회가 선정하는 2018년 6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구보라, 2018). 이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성공적인 기획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분석적 가치를 보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EBS에서 기획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주거〉라는 타이틀 아래 3회차로 구성된 콘텐츠 중 1회차에 속한 콘텐츠이다. 이는 2017년 6월 19일 방영되었다. 2회차와 3회차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주거와 관련된 각자의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이 글에서 보고자 한 것은 청년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중 1회차를 선택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1회 방영분은 모든 회차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포함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회차였으므로 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지난한 문제임에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은 도시의 주거 문제를 조명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청년들에 대한 집중은 1회차에서만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출연자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는 1회를 선별해 보고자 하였다.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꿈’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청년들의 실제 주거 공간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열악한 공간의 면모를 조명하며, 나아가 그러한 어려움들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EBS의 다큐 프라임은 2017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개편이 진행되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온 가족 공감 채널’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운 바 있다(남지은, 2017). 〈그곳에 청년이 산다〉를 포함하고 있는 〈행복한 주거〉 3부작의 경우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거공간에 대한 성찰을 담은 기획이다(구

보라, 2017). 이러한 제작 기획의 배경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주거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 두 콘텐츠의 방영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와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담론 형성을 위한 기사나 뉴스 형태의 단편적 콘텐츠를 제외하고 지상파 채널에서 청년들에 주목한 프로그램이 부재했다는 점, 나아가 그들이 보이는 사회적 움직임, 가령 도시로의 이주나 도시에 대한 상상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선정한 제작물은 몇 안 되는 재현의 사례 중 하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문제에 미디어가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인식론적 공백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조명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학술적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라 판단하였다.

## 2)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해 텍스트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혼용해 진행하고자 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구성, 재배열, 결합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양한 틀과 관념, 편견들에 의존하거나 활용해 해당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풀어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아현과 백선기(2018, 151쪽)는 미디어가 대중문화의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니는 의미와 영향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담론을 생성한다고 언급한다. 때문에 결합된 담론의 구성체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다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 그것을 해체하고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 분석 방법은 미디어 프로그램 분석에 있어 적절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자막, 인터뷰의 구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출연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청년세대 담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청년을 호명하고 있는 과정과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 <경성판타지>, <그곳에 청년이 산다> 출연자 정보 (2020. 5. 24, 16:14 기준)

프로그램	소재목	출연자 정보(이름/정보/나이)	방영 정보
〈경성 판타지〉	울산	신병국 (공무원 시험 준비생/27)	1회차: 2018.4.30
	삼인방의 서울 상경기	이지원 (대학생, 취업준비생/27) 정재현 (대학생, 취업준비생/25)	2회차: 2018.5.14
〈EBS 다큐프라임〉	행복한 주거	김다은 (대학생/20)	1회차: 2017.6.19
	1부 - 그곳에 청년이 산다	김진목 (인디밴드 리더/32) 안준민(31), 임지수(29) (예비 신혼부부) 신유진 (사회초년생/28)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이는 텍스트에 드러나는 재현과 개인들의 구체적 경험들을 비교해 현실에 대한 고증과 함께 개인들이 형성한 공간의 이미지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신혜란(2007, 60쪽)은 심층 인터뷰는 연구대상자와의 유연한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연구 방법은 다른 방법론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대상자들은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상경하기 전 가졌던 이미지와, 이후 서울에서 경험한 현실에 대해 증언하고 서술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의 회차를 인터뷰 참여자에게 시청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견 - 콘텐츠에 대한 공감, 비공감 등의 여부를 떠나서 - 을 심층적으로 녹여내기 위함이었다.

인터뷰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한 차례 이상 일대일 오프라인 만남으로 진행되었다. 라포(rapport)<sup>9)</sup> 형성을 위해 30분 이상 유연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인터뷰는 최소 60분 이상 이어졌다. 질문지 구성에 있어서는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질문을 정해놓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참여자가 편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대화가 진행될 때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이 이루어졌고, 일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명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터뷰 참여자 정보 (2021. 4. 1, 13:00 기준)**

이름	나이	성별	직업	현재 거주공간	출신 지역
A	26	남	프리랜서	서울	대구
B	28	남	프리랜서	서울	목포
C	26	여	방송업계 종사	서울	순천
D	27	여	학생	서울	포항
E	26	여	학생	서울	화순
F	32	남	취업준비생	서울	광주
G	26	여	서비스업 종사	서울	광주
H	32	남	회사원	서울	청주

9)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그 친밀도. (출처: 국립국어원. URL: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40615&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40615&viewType=confirm))

## 4. 연구 결과<sup>10)</sup>

### 1) 기능하는 도시, 서울

꿈<sup>11)</sup>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서울’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에 대해 상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성 판타지>는 이러한 상상을 서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작진은 “서울에 대한 다양한 판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직접 찾아가는 예능을 만들면 어떨까 싶었다”고 언급한다(구보라, 2018). 그렇다면 그 ‘판타지’란 무엇일까. 이는 콘텐츠의 서사를 따라가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울의 성공 신화, 그 재현과 상상

“경상도 청년들의 꿈 서울 살이  
강원도 토박이가 말하는 기회의 도시  
서울 꿈만 꾸기엔 만만치 않은 곳  
충청도의 여유를 기다려 주지 않는 각쟁이 서울  
화려한 걸모습 너머 서울의 슬픈 이면  
오랜 시간 쌓여온 서울에 대한 판타지  
진짜 서울과 마주한 지방인들의 이야기”

---

10) 이 연구에서는 결과를 서술할 때 텍스트 분석과 인터뷰의 내용을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고 텍스트 분석의 맥락과 조응하는 부분에 인터뷰를 유연하게 삽입했다. 이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참여자에게 방영물을 일정 시간 시청하게 한 이후 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기보다 연결되는 맥락에 인터뷰를 삽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석과 서술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11)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꿈’이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계획, 의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었다. (출처: 국립국어원. URL: <http://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위 내용은 <경성 판타지> 1회에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1분가량의 오프닝 부분에 삽입된 자막들이다.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하는 1화의 ‘오프닝’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 혹은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는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담론적 구성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프닝에 삽입된 위의 자막들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곳이 기회와 꿈의 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반짝이는 도시의 이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보여준다. 이는 프로그램에만 드러난 정서는 아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미성년자 때 이미 서울을 경험해본 F와 H<sup>12)</sup>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 일종의 낭만화한 상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서울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학생이니까. 근데 ‘소문’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가면 좋다. 서울에 올라가면 다 된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아왔던 것 같아요. (A)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당연히 졸업하면 서울에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C)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에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는 없지만, ‘꿈’과 관련된 일련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후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먼저 제작진은 서울에 가기 전 출연자에게 서울에 가면 무엇이 하

---

12) 이들은 대외활동과 주위 경험자들의 조언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시받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구체적 가능성을 상상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들이 상상하게 된 계기는 꿈과 관련된 무언가를 갈구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상경했다는 것은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과 공유되는 지점이었다.

고 싶은지 질문을 던진다. 이에 첫 번째 출연자 신병국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응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노량진에 대한 환상이 있다며, 노량진에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출연자 이지원은 서울에 대한 환상은 많이 없지만, 광고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는 지방에 회사가 많이 없고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서울에 가야 한다고 밝힌다. 세 번째 출연자 정재현은 중국 웨이신에 취업하길 희망하는데, 그는 울산에서 중국어를 “체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언급하며 서울에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열망과 의지, 계획 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현실이나 성취 가능성, 혹은 미래에 대해서는 단선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출연자 신병국의 경우 보고 들은 것에 기대어 서울살이의 고단함마저 하나의 ‘판타지’로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은 서울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 중간 중간에 삽입해 서울에 대한 환상을 일부 성찰적으로 다루거나 굴절시키지만, 바로 그 이유에서 이를 더 강화하기도 한다. ‘과연 서울이 최선일까’라는 메시지를 자막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편집의 구성은 비판적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가령, 서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편적인 예시, 한 예로 상담사를 통한 해결방법 제시, 실제 회사 공간을 보여주고 취업 방향을 설명해주는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작진은 지방과 대비되는 서울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울산의 시골 풍경 뒤에 삽입되는 서울의 세련된 사무실 전경과 화려한 놀이공원, ‘패셔니스타’ 정재현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공간의 축적된 이미지, 가령 꿈, 환상, 욕망 좌절 등의 그것이 출연자들에게 중층적으로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좌절의 이미지마저 ‘판타지’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의 단적인 예시일 수 있다. 이에 제작진은 곧 실제로 서울에 도착한 이들을 보여주는데, 세 명의 여행자는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연자들은 ‘지하철 타기’라는 첫 관문에 부딪히는데, 표를 구매하는 것부터, 노선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까지의 모든 행위들은 그들에게 도전할 과제로 표현된다. 복잡한 노선도를 읽는 것이 어려운 청년 ‘이지원’은 도착하자마자 위축되며 말수도 줄어드는 모습을 통해 서울이 낯설고, 지하철 타는 것 하나도 쉽지 않은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를 본 참여자들은 〈경성 판타지〉 내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서울에 대한 생소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쉽지 않은’ 서울의 면모를 체험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생활에 대해 ‘생존’, 혹은 ‘멈추면 살아남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이 생존하기 힘든 공간이기 때문에 인터뷰 참여자 중 B와 C, E는 차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고향이나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은 단지 성공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지방이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살기에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이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령 이 도시가 자신의 성공을 어떻게 담보하거나, 어떤 희망으로 ‘지금 이곳’의 끈고한 삶을 견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진술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방송 계열에서 일하는 걸 꿈꿨는데, 서울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순천에도, 여수에도 그리고 광주에도 방송사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C)

저는 아무래도 지방은 취업 환경이 구축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제 생활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E)

응답자들이 서울에 남게 된 주된 이유는 ‘꿈’이었다. 그런데 ‘꿈’이라는 한 글자의 단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은 경제적 성공, 전문성 취득, 자아의 실현,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응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는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의 응답을 관통하는 키워드였으며 <경성 판타지>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도 연결되고 있었다. <경성 판타지>의 여행 2일 차에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꿈과 연결되는 공간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튿날 출연자들은 대림동과 노량진을 여행한다. 두 장소는 각각 다른 공간으로 보이지만,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먼저 출연자 정재현을 위해 이들은 대림동에 가는데, 그곳은 출연자들에게는 무법천지와 같은 영화 속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시장 투어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고향 시장과 비슷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인터뷰와의 교차 편집을 통해 제작진은 공간에 대한 환상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에 재현되는 공간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체화되어 일상에서도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지할 것은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가 이른바 ‘실제’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 또한 제작진들의 선택과 배제, 절충을 통한 가공물인 이유에서 기존의 서울에 대한 환상과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림동과 노량진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곳’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장치는 프로그램의 오프닝에 자막으로 말했던 “서울, 꿈만 꾸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문구를 통해 서울에 대한 동경과 전망을 외려 강화하는 사회적 상상의 일종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후, 이들은 시장에서 강남 학원가로 장소를 옮긴다. 정재현은 과거에 배웠던 학원의 선생님을 찾아가 입시 상담을 받는다. 중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그의 의견에 선생님은 중국어 실력이 탁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어학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라고 권유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신병국의 이야기에서도 이어진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신병국’은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자 노량진으로 향한다. 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의 메카 노량진”, “거리마저 면학 분위기로 가득한 곳”이라는 자막을 통해 노량진을 설명한다. 노량진의 한 학원에 들어간 신병국은 그곳의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상담사는 노량진은 선의의 경쟁자를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부할 경우, 경쟁의식을 통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담사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1시부터 통제하는” 기숙사를 신병국에게 제안하는데, 그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노량진이라는 공간이 무연한 꿈을 위해 많은 것이 통제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술에 호명된 청년 주체들은 이를 수용할 뿐 아니라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도시가 표상하는 열정과 노력, 나아가 성공 신화와 그러한 담론에 포섭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학원에서 나온 출연자들은 컵밥을 먹기 위해 이동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컵밥에 대해 “저렴한 가격, 신선한 조리”, “바쁜 수험생과 직장인의 최고의 한 끼”라고 설명한다. 고기와 부추, 양념밖에 들어가지 않은 밥 한 끼가 ‘최고의 한 끼’로 추천되는 노량진은 식사도 빨리 해결해야 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경쟁 사회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컵밥을 먹은 후, 이들이 향한 곳은 고시원이다. 고시원은 책상과 책꽂이, 침대가 있는 비좁은 공간이다. 고시원에는 창이 있는 방과 없는 방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집주인은 “창이 있는 방은 창밖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잠생각도 나서”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를 둘러본 신병국은 인터뷰에서 “(고시원이) 진짜 한

발 두 발 걸을 수 있는 공간이더라. ... 힘든 환경인 것 같아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노량진, 그리고 그 안의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날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조차 허용되지 않는 혹독한 경쟁의 공간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되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과열된 경쟁의 공간인 노량진은 그곳에 당도하는 순간, 기본적인 권리도 목표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공간으로 특정되고, 이는 청년들에게 일종의 자기검열로 작동하여 경쟁에 참여하게 하며 기본권의 포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는 실제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현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 2년 동안 새 옷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는 F, 밥 한 끼도 얼마로 치환되는지 생각해보고 오천 원 이상은 고민을 하고 소비했다는 참여자 G의 응답과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꿈'을 위해,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그 공간이 서울이기 때문에, 현재의 편안함이나 여유보다는 '열심히', '경쟁하며' 지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 A는 프로그램에 나온 것과 같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위해 '러닝 메이트', 즉 경쟁자를 두고 노력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과 <경성 판타지>에서의 서사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들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전술한 르페브르의 재현 공간이 함의하듯, 특정 공간의 이미지와 상징, 혹은 기표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정당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꿈'과 '성공'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노력과 경쟁을 당연시하거나, 기본권에 대한 포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은 이러한 과정의 정당화를 넘어 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호(2013)는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통치술을 갖고, 대중들의 삶의 방식을 지도하는데, 이는 대중들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가장 잘 작동한

다고 언급한다. 즉, 서울의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통치술이자 이념을 정당화하는, 표면적으로는 이상을 구현하는 공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실현하는 일상적 공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자본이 된 공간 속, 소외되는 청년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서울살이'에 있어 '꿈', '경쟁'과 함께 자주 언급된 것은 주거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과 관련해 <그 곳에 청년이 산다>는 서울 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사와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있을까요?"라는 내레이션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성격 때문인지 <경성 판타지>와는 다른, 차분한 음악과 대사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 서두에서 던지는 나만의 공간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의미심장하면서도 비판적 논조가 보이는 지점이다. 이어지는 출연자들의 사례는 제작진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대학생 '김다운'이다. 해당 인물은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하지만, 기숙사에 떨어지고 고시원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그는 고시원이 지닌 여러 단점, 가령 단체생활이라던가 소음, 환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 달 만에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김다운'은 결국 햇빛을 포기한 채 반 지하에서 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김다운'이라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미 많은 대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상기시키듯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내에서 보여주는 기숙사 수용률은 15%밖에 되지 않는 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숙사 신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밖에서 월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대학생 '김다운'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충당한다고 설명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에 <그 곳에 청년이 산다>에서는 스웨덴의 크리스티

안스타드 대학교를 보여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크리스티안스타드 대학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짓는다”고 언급한다. 이는 프로그램 내에서 좋은 사례로서 제시됨과 동시에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청년이 산다〉의 두 번째 사례는 인디밴드의 리더 ‘김진목’이다.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김진목’은 예술 활동을 위해 집을 구했지만, “집을 가짐으로써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김진목의 사례는 김다은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하나의 문제, 즉 꿈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지만,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메꾸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보여준 이러한 사례는 도시가 가지는 환상을 통해 공간의 정치가 성공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치나 제도가 공정이나 평등의 가치로부터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변화한 화려한 도시로 대변되지만, 출연자들이 사는 곳은 그런 이미지와는 사뭇 대비되는 반지하와 옥탑방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집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한 문제 제기에 이어 〈그곳에 청년이 산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그들은 전국 청년 주거 빈곤율이 29%, 서울 청년 빈곤율이 40%이고, 고시원과 같은 주거공간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sup>13)</sup>는 비판을 제기한다. 따라서 〈그곳에 청년이 산다〉에서는 서울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제시되

---

13) EBS 다큐 프라임 행복한 주거 1부 - 〈그곳에 청년이 산다〉 00:16:49-00:17:19에 제시된 통계 자료. (출처 URL: [https://www.youtube.com/watch?v=obK\\_ARkYjsw](https://www.youtube.com/watch?v=obK_ARkYjsw))

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이라는 공간은 주거권조차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공간이라기보다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열악하지만 한 환경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비판한 문제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응답에서도 볼 수 있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집을 알아보는데 ... 전세 같은 경우는 몇 억씩 하더라고요 ... 가진 돈이 너무 적어서 그걸로 찾아보는데 너무 안 좋은 집만 나오는 거예요... (E)

부모님이랑 집을 같이 구한 게 아니어서 금액 비용 이야기를 하면, 더 싸게 하라고 하셔서 힘들었어요. ... 지금도 제 월급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주거 비용이에요. (C)

(학생 때는)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싸웠어요. 제가 학생이고 직장인이 아니니까 월세를 내기 못 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월세를 내주기에는...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가 버리니까... (G)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끊임없이 해왔던 응답자 F는, 그 과정에서 진로가 변경되어 처음 서울에 온 목적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물론, 이를 겪지 않은 인터뷰 응답자도 존재했다. 참여자 A와 H는 서울에 상경할 때 회사, 혹은 부모님이 집을 전세로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주거 문제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A의 경우 회사를 나오면서 본인이 주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 큰 압박을 느꼈다고 기술했다. 꿈이라는 밝고 희망찬 이미지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청년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경험한 참여자의 응답도 존재했다.

주거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었죠. ... 근데 LH 청년 주택에 거주 하면서 모순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서울에서 국가 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못'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해요. 일을 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야 해요. (B)

최근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위의 응답자처럼 복지 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적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한 현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응답자 C와 F는 매년 신청하지만, 아직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마저도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인터뷰 참여자도 존재했다. 이는 〈그곳에 청년이 산다〉에서 제기한 문제와 맞닿는 지점이다. 고시원에서 살던 사회초년생 '신유진'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언급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혜택은 2,200대 1이라는 비현실적인 경쟁률이 보여주듯, 극소수의 청년들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되지만 당장 '살 곳'이 없는 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sup>14)</sup>

이에 B는 '내 집'을 사려면 적어도 40대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이기도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첫 내 집 장만' 나이가 평균 43세로 밝혀졌다는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황의준, 2019). 청년들이 살아내기에 열악한 상황이 되어가는 도시공간이 '꿈'으로 포장되기에는 버거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2030 세대가 '올로(YOLO)<sup>15)</sup>' 대신 집을

14) 2019년 기준, 집 없는 30세 미만 가구가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하중훈·나상현, 2020, 11, 23. UR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001022&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001022&wlog_tag3=naver)).

15)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 현재



살 수 있는 ‘빚투16’)에 이끌리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문제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범수, 2020). ‘2030 동학 개미 운동’ 또한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대들의 주식투자는 “혼자 힘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양소희, 2020).

물론,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지난한 경제적, 계급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간에서 파생하는 자본의 격차와 그로 인한 주거, 결혼, 출산, 교육 등의 연관된 사회적 문제들, 나아가 정서적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은 부동산 소유주나 지주, 개발업자, 금융 자본가 등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포기되고, 자본가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맞게 개인을 개조하는 대리자(Harvey, 2005b/2008, 141쪽)가 되는 과정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사회에서 치밀하고 완강하게 작동하는 경제 논리를 내면화해 자기 계발,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동적 실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각자도생의 노력을 통해 꿈과 성공 신화를 이루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본가 계급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모순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면서 두려운 공간, 경쟁의 공간, 주거의 기본권도 챙기지 못하는 열악한 공간이다. 이러한 현실은 두 제작물과 인터뷰 응답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출연자들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서울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기회의 공간으로 상상하고 거기에 가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들의 상상은 단단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UR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48&cid=43667&categoryId=43667>).

16) ‘빚을 내서 투자’의 줄임말. (김범수, 2020, 11, 23.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23518714?OutUrl=naver>).

런데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경험함에도 여전히 서울에 모여들고 정착하려는 현상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공간의 문화정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꽤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동시에, 이들의 각박한 현실은 도시의 모순과 소외를 증명하는 사례로 보이기도 했다. 서울이 발신하는 이미지, 혹은 환상에 이끌려 그곳으로 이주하고 또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월세방, 그마저 여의치 않다면 반지하와 옥탑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 2) 도시성의 모순과 청년들의 자기 통치

### (1) 신자유주의 성공 신화에 포박된 청년들의 노동과 일상

서울까지 왔는데,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결국 그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E)

지방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쪽으로 투자를 하나까 뭐라도 돼야 한다는... (D)

인터뷰 참여자들의 응답은 ‘서울’이 단지 상상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 아닌,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와 현실의 경험이 더해져 청년들을 노력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이러한 공간 안에서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의 성공을 통해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력’과 ‘경쟁’이라는 신화는 다시 자기 통치의 논리로 환원되고 있다.

이는 <경성 판타지>에 등장하는 공시생인 '신병국'의 사례와도 이어진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노량진의 학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 그런데 학원의 상담사는 신병국에게 목표를 위해 서둘러 올라올 것을 권유하면서 “지방 수험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반도 있고, …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밤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생활 개념만 지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대화는 경쟁 환경 속에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기꺼이 타자에 의해서라도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량진의 공간적 특성이 청년들로부터 조바심을 느끼게 하여 그들이 스스로 통제와 고립의 공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통제와 규율을 프로그램이 일면 정당화하듯, 병국이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삽입한다는 점이었다.

한편, 이러한 신병국의 이야기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가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였다. 그는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도전하려 한다고 언급한다. 이에 상담사는 “많은 청년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얼마동안 지원을 해줄 것이니 다른 일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50-60%는 다 그만둘 것이다. … 수험생은 사회의 그런 부분을 역류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과 경쟁을 회피하고자 공무원을 꿈꾸지만, 그 과정은 어느 곳보다도 경쟁이 과열된 사회이며,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와 관련해 김남인(2018, 58쪽)은 청년들은 사회적 장벽을 마주하며 기성세대가 정립해놓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능률적 노동자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한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대안을 찾아 경쟁에 합류하지만 그 대안은 가장 과열된 경쟁의 공간이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에 도시는 해결 방법처럼 보이는

것, 이를테면 개인의 노력과 열정, 혹은 상담사가 제시한 서울로의 이주와 통제의 방식 같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믿게 하여 모순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기성세대의 영향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서울에 올라 오게 된 이유, 특히 부모님 세대의 기대나 반응과 연결되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사는 걸 바라세요.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까지 올려 보냈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쏟아 부었던 지원은 뭐가 되냐는 입장이셔서... 서울에 있는 건 성공한 거니까... (C)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부모님이 단호하게 “오지마”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생도 서울로 보내시는데, 동생이 내키지 않아 하니깐 설득과 권유를 통해서라도 서울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D)

이러한 인식은 젊은 세대까지 이어지는 지점이 있었다. 참여자 E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방에서의 성공과 서울에서의 성공은 그 치열함이 다른 것 같아요. 친척 중에 누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으면 잘되길 바라고, 그 친구가 만약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하면 뭔가 패배자 같다는 생각이 들고 ...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E)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 C의 경우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거권이 보장된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그릴 수 없다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이들은 서울의 이미지인 ‘성공’이라는 것에서

떨어지는 것을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서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버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서울의 이미지는 곧 '그곳'에 거주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해, '그곳'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낙오자, 실패자 등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도시라는 공간이 참여자들로부터 성공을 스스로 갈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서울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과 시선으로부터 압박을 경험하고 더욱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통치의 기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아이러니(irony)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즉, 이들은 공간에서 실현되는 정치나 문화적 실천의 능동적 참여자가 되지만, 엄밀하게 말해 서울이란 공간에 안착하지는 못한 채 유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서울에 안착한 하나의 모범 사례, 혹은 성공 신화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의 이미지와 성공에 대한 압박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이어졌다.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서울에 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이 지방보다는 발달된"(F),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G), "문화적인"(H)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자신의 고향과는 다른, 또, 다른 도시와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역, 혹은 색다른 로컬(local)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참여자들에게 지역은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그래서 기회가 없는 곳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은 기회의 공간이고, 자신이 노력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스스로의 노력을 끌어내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대상자들의 응답에서 특정 도시의 이미지가 '궁정적으로' 윤색될수록, 주변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는 하향되는 측면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거대 도시 계획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키웠지만, 그것이 성공적일수록 그곳에 문화와 자본, 인적 네트워크 등이 쏠리게 함으로써 지리적 불균등이 실재하는 물리적 조건이자, 정서적, 문화적 구성물이 되어 감(becoming)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 A와 F, H는 '즐기고 있다'고 표현하

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서울에서 지내는 것에 대한 피로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진술하며 특히, F의 경우에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웠다고 언급했다. H는 힘들긴 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제가 되어 좋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에 와서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던 이들이 말하는 ‘좋은 집’이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언급한 긍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규율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과 목표를 위한 실천의 과정에 근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령, 응답자 F는 서울에 온 이후 경제 활동을 쉬어본 적이 없었고, H는 세 개의 직장을 동시에 다니고 있었으며, A는 자신의 꿈을 위해 일을 하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자기 계발을 했다. 이는 즐기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스스로 통치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으나, 자기 경영과 계발의 원리에 적용되는 윤리적 정당성이 적용됨에 따라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문강형준, 2012, 125쪽). 물론, 여기서 제시된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압박 외에도 응답자들을 옥죄는 요인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는 주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 (2) 자본과 계급 표상으로서 주거 공간, 상승을 꿈꾸는 청년들

〈그곳에 청년이 산다〉에서는 실제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제작진은 대학생 김다은의 사례를 통해 수도권 대학가의 월세 시세를 제시하고 기숙사의 수용률이 15%밖에 안 되는 것을 지적한다. 서울로 집중된 자원-문화, 취업의 기회, 인적 네트워크 등-때문에 도시로 이주하지만, 거주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프로그램에도 ‘꿈’을 강조하며 청년을 노력의 담론으로 포섭시키는 측면이 존재했다. 프로그램에 등장한 LH 토지구택연구원은 “(주거공간

은)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그 비좁은 집에서 높은 월세를 내면서 과연 꿈을 꿀 수 있겠느냐 ... 청년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한다. 꿈을 실현해야 할 청년에게 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이 전제 조건이 된다. 동시에 청년을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연구원의 언급은 그들을 개별 주체가 아닌, 사회의 도구나 부품으로 보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자원, 혹은 자본이 된 것은 청년만이 아니었다. 땅을 내어주는 것을 '투자'로 보는 것은 공간 또한 자원으로 순치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원래 서울 태생인 친구들'과의 격차를 느끼는데,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들이 갖지 못한 자본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응답자들은 그들에게 '토대'가 되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공간이라는 자본의 격차를 매우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소진시키고 있었다.

보면 부러운 게 있죠. 월세라는 부담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가족이 있는 집이 있고, ...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서 산다는 게 부럽기도 해요. 다른 출발점이구나 생각한 적은 있어요. (E)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요즘 시대에는 재력이구나를 느꼈어요. ... 올라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재네들은 저렇게 잘 사는 데에 비해 저는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에 악바리가 되기 시작된 거 같아요. 일단 올라왔으니까 뭐든 해야 하잖아요. (G)

차이를 느끼죠. 인적 네트워크에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 인적 네트워크가 그들끼리 잘 되어있다 보니까,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하려는 것도 있었죠. (H)

그들이 과거에 태어나 살았던 공간인 지방과 서울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계층적 차이와 간극을 느끼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서울 태생인 친구들보다 문화적 경험, 인적 자원, 주거 공간 등 삶의 질(質) 전반에 있어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지점은 서울과 지역의 환경과 인프라의 차이가 빈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들은 이를 더 절감하고 있었다. 공간을 자본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물적이면서 동시에, 정서적, 문화적 가치가 되고, 그곳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좁혀지기 어려운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주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착근한 계급적 문제이다. 일례로,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휴먼거지’, ‘월거지’, ‘전거지’ 등의 은어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휴먼거지는 LH의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의미이다. 월거지, 전거지는 월세에 사는 대상, 전세에 사는 대상을 칭하는 은어이다. 학생들은 사는 곳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누리는 것이다(박승룡, 2021). 이는 결국 주거와 공간의 문제가 사는 곳에 따른 계급과 특권의식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으며 그것이 서울로 이주해 온 청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혹은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간에서 생기는 자본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전술한 자본주의적 패러다임과 통치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개조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에 재현된 도시의 이미지와 가능성, 그리고 그곳에서 체험되는 개인들의 경험은 하나의 체계처럼 순환되는 측면이 존재했다. 개인들이 체험한 물리적 경험이 도시 공간의 특성으로 수렴되고 있었고, 이는 다시 공간의 이미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화한 시대에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급속하게 발전한



교통과 통신, 자본의 이동 등 기존의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하는 자유로운 국제(내) 자본, 정보, 이념 및 사람의 이동이란 글로벌 정경이 수도권 일극 경제화를 완화하는 대신, 그 반대로 도시유입과 지역유출을 심화하기 때문이다(전영수, 2021). 이와 관련해 서울에 대한 판타지로 인해 ‘그곳’으로 이주한 이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지방 거주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공 신화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고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순환의 고리는 추상적, 이념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 기민하고 완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인터뷰 참여자들 F, G, H가 서울에 오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거나 과열된 경쟁의 문제 등이 망각되는 것은 르페브르가 말했듯 재현 공간, 즉 서울에 삽입된 상상과 이미지의 기능이 꽤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경제적 격차는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는 현실의 모순을 잠시나마 자각하게 만드는 측면도 보였다. 참여자들은 원래 서울에 거주하던 친구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느꼈다는 경험, 그 당시에 현실이 절실하게 느껴졌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각이 하비가 제안한 상징적 의미에 대한 저항, 혹은 비판으로 이어지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다시금 상상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참여자들의 답변을 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공간이 특정 이념이나 믿음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제가 꽤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또한, 이는 하비의 주장과 같이 사람들이 체현되지 않은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도적 세계와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분석한 두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예술인 등으로 구분해 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다만, 사적인 부분보다는 직업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과

함께 애환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시청자들을 호명하는 효과적인 기호로 작동했다. 이들은 지역, 젠더, 직업, 주거지 등 표면적으로는 개성적이고 다양한 개인들이었지만, 프로그램 내에서는 위와 같은 카테고리(category)로 유목화해 출연자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일반인들의 공감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가령, 주거지의 불안정성, 서울 살이의 어려움, 폭등하는 집값 등은 개인적인 경험과 체감은 물론, 그 해법이나 대안의 차원에서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거시적 비판과 사회적 논의를 제시하려 했다는 측면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인터뷰 참여자들은 주거 문제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정서적 이유들, 예컨대 가족의 압박, 극심한 경쟁과 과정에서의 불안함, 주위 시선으로 인한 부담감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 5. 나가며

이 연구는 <경성 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를 통해 현대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 담론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서울이 청년들로부터 어떻게 자기 통치를 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 <경성 판타지>에서는 서울이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자 미지의 두려운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출연자들의 고향인 울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남과 노량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타인과 경쟁하는 공간이자,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고립과 통제, 내핍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무한 경쟁에서 이기거나 생존하기 위해 감정조차 제한되는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그곳에 청년이 산다> 역시 비판적이

고 성찰적 시선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바라본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힘겨운 일상의 민낯을 보여주며,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분투하는 그들의 삶과 의지, 희망과 불안에 관해서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례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경성판타지>와 <그곳에 청년이 산다>에 공감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서술했다. 이는 서울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경쟁에서의 분투, 소진, 불안, 분노, 회의 등의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언젠가 '성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 등의 다층적이며 상호 모순적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서울'이라는 공간의 특성은 청년들을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통치하거나 이러한 체계에 순치하면서도 한편, 이를 창의적으로 접합하거나 전유하려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공간이 자본으로 치환되면서, 인터뷰 응답자들은 도시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와 더불어 정서적, 심리적 간극, 혹은 불안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과 인식, 감정으로부터 비롯한 사회적 상상 및 상응하는 실천은 안정적인 도시 정주민의 자격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의 확보 및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경주해야 할 일상의 다양한 실천과 자기계발 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또한, 이는 종종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명징하게 하는 계기가 되거나, 다채로운 의미의 충돌이나 오인, 균열의 원인이 되어 새로운 인식과 정동예의 전유 가능성에 열려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대부분의 경우, 은밀하면서도 복합적인 자기정당화나 변형된 형태의 자기통치적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공간의 소유에 기인하는 다양한 물질, 정서적 격차가 청년들의 관념과 정동

속에서 주목할 만한 지배적 권력이 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진지한 숙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 극복하고 또, 대안적 전망을 예비해야 할 일련의 통치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미디어에 재현된 글로벌한 대도시로서의 '서울'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사회적 상상과 담론들을 분석하고, 그 공간적 특성이 청년들을 일상화한 경쟁 환경에 포섭하면서 이를 자연화하는 점, 이것이 자기 통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색적으로 다룬 이 연구는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상황 및 신자유주의 담론에 포섭되고 있는 그들의 현실과 정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이자, 한국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를 실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서울의 공간적 특성이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전달되거나 소구되는 담론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분석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미디어 재현과 상상을 다루면서도 국가 차원의 관련 복지 정책과 대안적 전망에 관해 확장된 논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미디어에서 구성하는 공간의 담론이 다양한 시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고재연 (2018, 10, 4). X세대…Z세대…복잡한 세대 분류 어떻게?.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0430361>.
- 구보라 (2017, 6, 20). 청년들의 주거 민낯...다큐프라임 '행복한 주거'. 〈Pd JOURNAL〉.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33>.
- 구보라 (2018, 8, 9). "지역의 서울 판타지, 달콤 씹쓸하죠". 〈Pd JOURNAL〉.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98>.
- 김남인 (2018). 〈미디어의 청년세대 호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년들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대근 (2019). 전후 한국영화에 재현된 자본주의적 공간의 형성: 데이비드 하비의 도시이론을 중심으로. 〈씨네포럼〉, 34권, 149-179.
- 김범수 (2020, 11, 24). 코로나의 역설... 2030 '영끌 빚투' 열풍 [심층기획]. 〈세계일보〉.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23518714?OutUrl=naver>.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권, 207-248.
- 김수정 (2011).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서구조와 문화정치학. 〈방송문화연구〉, 23권 2호, 37-72.
- 김은준 (2015). 초기 힐링 담론의 자기 통치 프레임과 담론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74호, 38-71.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권 1호, 179-212.
- 남지은 (2017, 3, 23). 교육방송 "온 가족 공감 채널 되겠다".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787738.html#csidxaebcbee35d7207d8f9f4f33e7d45aad>.

- 덩중리·류응재 (2020). 중국 청년세대의 토크쇼 프로그램 수용에 관한 연구: <강연합시다> 와 <기과설> 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7권 1호, 5-40.
- 문강형준 (2012). 자기계발의 시대, 미세하고 부드러운. <문화과학>, 69호, 121-130.
- 박상완 (2018). 텔레비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존법. <한국극예술연구>, 60권, 165-203.
- 박성준 (2019). 한국 청년세대 담론의 변화(1990s-2000s).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 8권 1호, 24-42.
- 박승룡 (2021, 4, 18). 기자수첩/ '휴먼거지'를 아시나요?. <동양일보>. URL: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291>.
- 박인혜·최예민·박제완 (2021, 4, 19). "20대는 진보·보수 넘나들어...소수의견 귀하는 정당 이젠 안먹혀". <매일경제>. URL: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76674/>.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권 2호, 47-78.
- 방희경·유수미 (2015).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 (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37-61.
- 송아현·백선기 (2018).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위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11호, 146-160.
- 신혜란 (2007). 심층 인터뷰 연구방법론: 타인에게 배우는 데이터수집분석 기법. <국토>, 60-68.
- 양소희 (2020, 8, 8). 미국행 '이승만호' 탄 2030 동학개미 아시나요?. <오피니언 뉴스>. URL: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87>.
- 오민석 (2018, 6, 9). [삶의 향기] 공간의 재생산. <중앙선데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2699333>.
- 유승호 (2013). 후기 근대와 공간적 전환. <사회와 이론>, 23호, 75-104.

- 윤민재 (2017).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와 신자유주의>.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윤상우 (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경제와 사회>, 83호, 40-68.
- 윤희중 (2019, 3, 2). 언론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 news&act=articleView&idxno=147049>.
- 이동연 (2004). [기획: 공간의 문화적 분석] 공간의 역설과 진화: 홍대에서 배우기. <문화과학>, 39권, 180-193.
- 이승희 (2019, 9, 7). “모든 길 청년문제로 규정하는 건, 진짜 청년문제 접근 차단”. <인천 투데이>. URL: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367>.
- 임성훈 (2014). 근대적인 공간과 장소성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권 6호, 185-192.
- 임운택 (2010).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에 대한 이념형적 분석. <경제와 사회>, 88호, 300-337.
- 전상진 (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5권, 103-140.
- 전상진 (2019). 세대 프레임의 쓸모.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3.
- 전영수 (2013).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서울: 중앙북스.
- 전영수 (2021, 7, 10). 인구와 경제: 주식투자 열풍 뒤엔 ‘인구변화’ 있었네. <한국일보>.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808340005691?did=NA>.
- 정두순 (2018). 춤과 춤꾼의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la ville)와 자주관리 (autogestion)를 통한 공간실천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5권 1호, 239-268.
- 정명중 (2017).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인간환경미래>, 19호, 3-28.
- 조명기 (2012).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두 변증법. <어문론집>, 50권, 451-478.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8권 2호, 22-64.
- 철학아카데미 (2004).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서울: 소명출판.
- 최성민 (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0권 0호, 227-248.
- 표예인 (2017). 청년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학.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1호, 125-166.
- 한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 (becoming)의 통치술.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431-454.
- 허영란 (2020, 9, 7). [경상시론] ‘공간의 생산’과 울산의 정체성. <경상일보>. URL: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207>.
- 홍성현·류용재 (2013).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4-57.
- 홍준기 (2011). 르페브르의 공간 및 도시공간 이론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현대정신 분석>, 13권 2호, 163-182.
- 황의준 (2019, 6, 24). ‘첫 내 집 장만’ 나이 평균 43세... 집값 38%는 대출. <MBC>. URL: [https://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375982\\_29138.html](https://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375982_29138.html).
- Cahill, D. & Martijn, K. (2017). *Neoliberalism*. 최영미(역)(2019). <신자유주의>. 서울: 명인문화사.
- Elden, S. (2004). *Understanding Henri Lefebvre: Theory and the possible*. 전국조(역)(2018).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 이론과 가능한 것>. 서울: 경성대학교출판부.
- Harvey, 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구동화·박영민(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도서출판 한울.
- Harvey, D. (2000). *Space of hope*. 최병두 외(역)(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서울: 도서출판 한울.
- Harvey, D. (2005a).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최병두(역)(200



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Harvey, D. (2005b). *Space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임동근 외(역)(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지리적 불균등발전론>. 서울: 문화과학사.

Lefévre, E. (1967).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박정자(역)(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Lefévre, E. (1988).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역)(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예코 리브르.

Tuan, Y.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회·심승희(역)(199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투 고 일 자: 2021년 07월 12일

심 사 일 자: 2021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08월 23일

## Abstract

# Seoul as a self-governing space represented in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Metropolis as representing space and young people,  
planning a way to live their own lives

### Noh, Yeongeun

Ph.D. student,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 Ryoo, Woongja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Kyungseong Fantasy〉 and 〈Young People Live There〉 are broadcast contents that pay attention to the image and reality of Seoul. 〈Gyeongseong Fantasy〉, which aired on Ulsan MBC, plans a trip to Seoul to achieve the fantasy of young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This content reproduces “Seoul” as a “fantasy” city where dreams and hopes exist, but also shows the flip side. A reenactment of urban reality is also shown in EBS’s documentary, 〈Young People Live There〉. The two programs are telling stories about the lives of young people, residing in Seoul. The shows feature young people who are not securely guaranteed their right to live in Seoul, highlighting the realistic lives of individuals, living alone in Seoul. Both share a common ground in that they depict Seoul in a certain way,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at it is being reproduced as a interconnected image of the dreams of the city and young people, and that it fully reveals the reality. However, these parts include

the point where space is used as a discourse to mask the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m and the process by which it works as a governing mechanism for the audience. We tried to critically analyze the image of Seoul, represented by the media and the illusion it creates, through the panorama of 〈Gyeongseong Fantasy〉, and the 〈Young People Live There〉, which realistically depicts the space called Seoul.

We tried to analyze the city's function in a dense and harsh real-world by combining textual analysis of the programs with in-depth interviews of viewers in their 2030s. We also utilized Henri Lefebvre and David Harvey's theoretical frameworks of representing space and relational space. This is due to Harvey's discussion on neo-liberalism and space is useful to explain the function of Seoul,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of neo-liberalism. Lefévre also explains the city's characteristics that make people forget the contradictions of everyday life. Therefore, one may argue that two scholars' discussions could provide useful observations for reproducing Seoul as a fantasy space and analyzing the process of forgetting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society.

**KEYWORDS** City, Space, Youth, Neo-liberalism, Self-governance